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생명과 영생    성경: 요한복음 12장 23-31절  
 (Tag:프시케,조에,생명,영생,신약성경,요한복음,부활)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12:23-31)

프시케와 조에.

프시케는 생명, 조에는 영생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인가? 비슷한 말인가? 차원이 다른 말인가? 반

대말인가?

생명은 짧고 영생은 길다?

답은 24절에 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생명’이다.

많은 열매는 ‘영생’이다.

원래는 모든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인생은 ‘프시케’가 아니다. 인생은 원래 ‘조에’였다.

오늘날 ‘프시케’를 믿느냐, ‘조에’를 믿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조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다만 육체를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존재하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삶과 죽음이란 같은 존재의 다른 형태일 뿐.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에’를 품고 있는 ‘프시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프시케’에서 ‘조에’가 되는 과정이 곧 ‘희생적 죽음’, 또는 ‘희생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사명감당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의 사명은 땅에 뿌려져 죽어(씩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충분히 120년 정도는 프시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란, 씨앗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나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번데기인가 나비인가?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생명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값진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생명을 생명 그대로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이다.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 않는가? 프시케가 프시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프시케를 조예를 위해서 소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영생을 위해서 희생적인 프시케가 되도록 하라는 뜻. 삶이든 죽음이든 희생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

사실 이게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면 프시케는 대단히 약점이 많다. 하루에 세끼나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입어야 하고, 신어야 하고, 짝어 발라야 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른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신발도 계절별로 색깔별로 열 개씩은 있어야 하고,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금 새로 장만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프시케가 분주한가? 그래서 희생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조예를 놓치게 된다.

조예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초생활이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유익도 많다. 의미도 크다. 조예는 구매할 수도, 상속 받을 수도,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교회 문턱만 넘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행복한 교회생활 성경: 골로새서 3장 15-17절 (Tag:)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3:15)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3:16)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3:17)

항상 평안할 것. 심지어 불행 중에도 평안할 것.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3:15)

- 불행앞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려는 뜻이 아님.
- 불행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라는 뜻이 아님.
- 불행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 불행을 당했다면 처절하고 마땅히 그것을 수용해야 함.
-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인가, 마귀에게 유린 당할 것인가?
- 차라리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낫다. 예전에 싸움이 시작되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자식 먼저 때린다. 그게 미운게 아니다. 그게 다행인 것이다. 과거 할아버지들은 손자 귀엽지만, 못난둥이라고 했다. 귀신이 시샘할까봐서...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3:16)

찬양예배 계획 발표.

앞으로의 목회 계획 발표.

탄자니아 고아원을 위한 비전 선포.